

성 호세마리아와 함께 바치는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에 대축일 9일기도



11월 30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92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 모든 완덕의 총합이신 동시에,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느님께서 뒤에 계시기에 그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어 주실 수 있고, 여느 어머니들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여느 어머니들처럼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명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편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비록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언제나 해결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일터에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성모님처럼 순결하신 분 곁에 오래 머무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성찰해 보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내내, 비록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도, 무엇을 추구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올바른 방향을 지니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선하고 깨끗한 무엇, 우리 양심에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 영혼에 행복을 가져오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전보다 더욱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순간적 행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동시에 초자연적인 심오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입니다. 지상에서 그러한 행복에 도달한 유일한 피조물이 하느님의 걸작이신 거룩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님은 지금 살아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모님의 몸과 영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묵주기도,
환희신비 제4단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루카 2, 22) 이번에는 나의 작은 친구인 당신이 산비둘기 한 쌍을 봉헌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 마치 불결한 사람처럼 율법을 따르고 계십니다. 나의 어린 친구인 당신은 성모님의 이 모범적 행동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고,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완수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화되는 것! 당신과 나, 우리 모두에게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속을 초월하는 사랑 때문에 보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로 달구는 그 사랑은 우리 영혼의 찌꺼기를 불태우는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의 비천함을 거룩한 불꽃으로 바꾸어주는 불명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189

정결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지극히 아름다우신 성모님께 의지하며, 제가 수년 전부터 강조했던 충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날마다 겸손하고 정결하고 성실하고 기쁘고 관대하게 살아가려고 힘껏 노력하지만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렸던 충고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저지른 모든 죄들이 여러분에게 향의하며 대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기는 어린이의 믿음으로 거룩하신 어머니를 부르십시오.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기도

성모님, 당신께서 제게 선물, 애정의 증거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 제 죄에 대한 참회,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슬퍼하는 선물을... 나의 생명, 나의 희망이신 성모님, 당신의 손으로 저를 이끄소서! - (tenuisti manum dexteram meam!) - 그리고 지금 제 안에 아버지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성모님과 함께 그것을 찢어 버리겠습니다.

메모, 1932년 10월 7일

12월 1일: 모두의 어머니님, 각 사람의 어머니님

하느님의 친구들, 276

마리아의 신적 모성은 그분이 받은 모든 특전과 성덕의 원천입니다. 그 신적 모성 때문에,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은총이 가득하시며, 평생 동정이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으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과 성인들 위에 모후의 관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 이외에 그분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에 무한한 선이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무한한 품위를 지니십니다.”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복되신 성삼위께로 이처럼 가깝게 인도하여 주신 성모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발고랑, 801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넘쳐흐르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인간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은총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하느님의 따님이시며, 아들이신 하느님의 모친이시고, 성령이신 하느님의 배필이십니다.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전 인류가 차별도 구별도 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모님의 딸, 아들인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0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신의 삶 속으로 모신은 것이지요. 영성가들은 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모 마리아를 그들의 삶 안에 모시도록 초대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확실히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확신에 차서 당신께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당신이 우리 어머니이심을 보여주소서”라고 간청하며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알고 당신께 호소하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간청을 미리 아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주 빨리 오시는 분입니다. 성모님의 손길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3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공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줍니다. 성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복잡한 문제들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그 무엇도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진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되는 길... 그 길의 시작은 성모님께 대한 신뢰 가득한 사랑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묵주기도에 관해서 쓴 소책자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말의 진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 생각을 여기서 결론짓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 이 말의 진실을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성모 마리아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내보이고,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성모님께 털어놓으며,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분께 간청함으로써 말입니다.



기도

성모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가고 그분께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진실한 일입니까!

길, 514항 해설서

12월 2일: 기도의 교사이신 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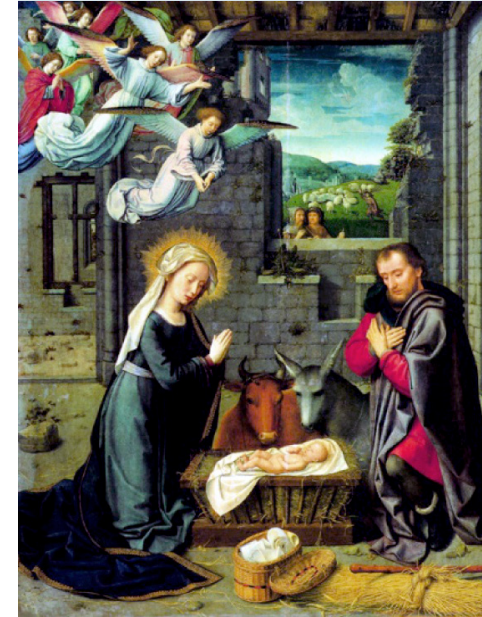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동정 성모님의 은총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순결, 겸손, 근심, 관대함, 그리고 성실함 등... 성모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면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모님을 닮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러한 성모님의 모든 특성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특징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성장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사셨던 '기도하는 삶'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머니께서 주시는 은총을 잘 이용한다면,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목사이신 성령의 감화를 언제라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마주 대하는 일에 진심으로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익명의 군중 속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적 생활이 하느님과의 개인적 만남과 무관하다면 그런 내적 생활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교와 가장 맞지 않는 것이 바로 '피상성(皮相性)'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냥 단조롭게만 살아간다면 이는 관상적인 영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각자 그분께 응답해야 합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1사무 3,5)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매일 살아가는 생활환경 안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우리네 삶의 일상적인 리듬을 따라갑니다. 하루하루가 똑같고 심지어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너무도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의 상황들이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가장 무의미한 활동들조차도 그 내부로부터 생명력을 주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74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되새겨보십시오. 예수님께 '당신을 경배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러한 생각들을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한가운데에서도, 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관상가(觀想家)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왜냐하면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관계없이 항상 그런 신앙의 자세, 초자연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를 견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241

우리 어머니께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구약의 성인들의 말씀들과 그들이 겪은 사건들을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묵상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느님께서 한없는 자비로, 그렇게 자주 은혜를 저버린 당신 백성에게 하신 모든 위대한 업적에 놀라워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보여 주신 사랑에 감탄하신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사랑에 가득 차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6-48). 이 좋으신 어머니의 자녀들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우리를 관상가(觀想家)로 만들어 달라고 청합시다.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느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분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어머니, 당신은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복돋우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그 은총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74

12월 3일: 믿음의 여인 마리아 신앙의 스승이신 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84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이 말씀은 성모님께서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산악 지방의 한 고을로 갔을 때 엘리사벳이 드린 인사였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보여 준 믿음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그분은 아드님이 태어났을 때, 이 땅에서 하느님의 위대함을 관상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찬미 노래를 부르고, 목자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중요한 인물들도 아기를 찬양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가정은 헤로데의 살육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동안 조용하게 사십니다. 갈릴래아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 다른 여느 가정처럼 단순하고 평범하게 사십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204

이번 성찰을 마치면서 우리도 주님께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거듭 거듭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많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73

동정 성모님께서는 단순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확고하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하셨고 이를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다 바쳐서 그분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실로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마태 7,21)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72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 어머니를 찬미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성모님의 고통, 그리고 노동이나 믿음의 시험으로 인한 그분의 괴로움을 경감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똑같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7-28) 이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소서”(루카 1,38)라고 하며 순명하신 어머니께 대한 찬사였던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신 당신 말씀을 진정으로 아낌없이 살아내셨으며, 그에 따른 모든 결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화려하게 사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루하루를 숨어서 말없이 희생하며 지내셨습니다.



기도

“어머니!” 큰 소리로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그대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위험에 처한 그대를 보고 계십니다. 그대의
거룩한 어머니인 그분은 틀림없이 당신
아드님의 은총과 더불어 그대를 안전한 두
팔로 안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새로운 투쟁을
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길, 516

12월 4일: 순결한 사랑의 표상이신 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77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집회 24,24: 대중 라틴말 성경). 이 말씀이 오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깨끗한 삶, 예민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교회에 충실히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자체입니다. 거기에는 배신이나 이해타산 또는 태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맑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은 하느님이시고, 그분은 삼중으로 거룩하신 분, 곧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지극히 선하시며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관한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유일한 두려움은 사랑이신 하느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물론 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헌신할 때에 불안해하거나 겁을 먹거나 머뭇거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담대하고 용감하며 품위 있기를 바라십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성경 구절로서는 다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아가 3,1).

길, 144 사도 요한은 평생 정결에 흠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골고타에서 모두 도망쳐버렸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함께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정결이 그대의 성격을 강하고 활기차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친구들, 183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향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사랑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순수하고 깨끗하고 고상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음은 자신을 불결함으로 채워 복수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참 사랑과 생명의 순수함은 무감각이나 육체적 욕망과는 거리가 멀며, 또한 부정함이나 냉정함 그리고 감상에 빠져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길, 902 그대는 왜 하느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진정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87 우리 임금님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우리 마음의 모후시여,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돌보는 방법을 알고 계시니 알고 계신 그대로 우리를 살피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시여, 은총의 왕이시여, 당신께 청하오니, 시인이 한 구절씩 시를 짓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에서 소박한 사랑의 시를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쓰는 사랑의 시는 “평화의 강물”(이사 66,12)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자비의 바다이시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코헬 1,7)



기도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은 마음에 홀로 성모님을 모시고 그분께 조그마한 소리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간청해야 합니다. ‘어머니, 가엾은 제 마음이 어리석게도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면 ...’ 그러면 성모님은 여러분이 정결을 지키고 하느님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180

12월 5일: 성모 마리아, 우리의 희망,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치시는 분

하느님의 친구들, 286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루카 1,48).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딧, 에스테르, 드보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여성들은 당시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도 인간적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성모님의 화관은 당신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였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실 때까지 남은 지상 생애 동안 조용하게 지내셨다는 점입니다. 성모님을 잘 알았던 루카 성인은, 그분을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 기도 안에서 가까이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칭송받으실 분이 이 지상 생애의 끝날까지 이렇게 사셨습니다.

성모님의 희망과 우리의 조급함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느님께 우리의 작은 선행에 대한 보상을 당장 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어려움이 보이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노력과 희망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하느님의 친구들, 221

희망을 가득 간직하십시오! 사려 깊은 영혼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으로 살며, 희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요한 성인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짧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1요한 2,14). 하느님께서서는 교회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젊음을 간직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었던 미다스 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사랑 자체이신 분의 환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도 지상에서 이룬 가장 고귀한 사랑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상의 짧은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의 외아드님처럼 “좋은 일”(사도 10,38)을 하도록 안배하셨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성인께서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자신의 영혼 안에서 느꼈던 부르심에 바짝 긴장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오너라.”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애타게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기도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의 집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희망이신 거룩하신 마리아께 간청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아버지의 나라로 가겠다고 진정한 열망을 마음 안에 한결같이 간직하기로 굳게 결심한다면, 우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은총으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실 것이며, 우리의 배를 목적지의 아름다운 해안으로 데려가기에 충분한 바람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221

12월 6일: 저의 피난처이시고 저의 힘이신 성모님

하느님의 친구들, 288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때가 되었을 때, 성모님은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슬픔 속에서 들으셨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마태 27,39-40). 성모님은 고통받는 아드님과 하나 되어, 아드님이 부르짖으시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 27,46) 성모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아드님의 사랑에 온전히 일치하여, 날카로운 칼에 심장이 꿰찔리는 무한한 슬픔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의 고요하고 사랑스러운 현존을 느끼며 새롭게 위안을 받으십니다. 성모님은 소리를 지르시지도 않고, 열광적으로 뛰어나가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아드님 곁에서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보시고, 그다음에 요한에게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요한 19,26-27).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대표하는 모든 인간, 특히 당신을 믿는 제자들을 어머니께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복된 탕’(부활찬송)을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해 주었기에 복된 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얻게 해주었으니 복된 탕이라고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어 온갖 은혜를 얻어 주시니,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께,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길, 508

마리아님의 용기에 탄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치에서, 가장 큰 인간의 슬픔을(그만한 슬픔은 없습니다) 깨끗이 견뎌내십니다. 그분께 그와 같은 인내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도 십자가 가까이에 남아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제13처

그대의 사도직에 실망이 들어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듯이, 그대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밑물에 맞서서,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어머니 성심의 보호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Sancta Maria, refugium nostrum et virtus!” “저의 피난처, 저의 힘이신 성모 마리아여!”

평화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침착하십시오.....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친구는 그저 몇몇 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괴로움에 찬 하루하루, 가끔은 하루가 너무 길어 보이더라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141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면, 비록 십자가 없는 순간이 잠시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 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옥좌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주님의 어머니요 또한 우리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을 얻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의 발자국을 확고하게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나의 어머니,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당신 아드님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도, 담대함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길, 497

12월 7일: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73

우리는 성모님의 자연스러우면서도 초자연적인 품위를 닮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구원의 역사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피조물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로 인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기” (요한 1,14)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조용한 증인입니다. 당신 자신의 영광을 좇지 않으므로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린 아드님을 둘러싼 신비에 언제나 함께하셨지만, 그러한 신비들은 말하자면 ‘평범한’ 신비입니다. 거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군중이 놀라 환호할 때 그분은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추앙받으셨을 때 우리는 마리아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뒤 성모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곁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행동방식은 그분 개인의 위대함과 심오함, 그리고 영혼의 성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72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처지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겉으로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모 마리아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모님은 은총으로 가득하셨고,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분이며, 모든 천사와 성인들보다 높은 곳에서 찬미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창조되신 분입니다.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하느님의 계획을 들으시기 전까지는 당신이 태초부터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미친한 피조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게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다” (루카 1,49)라고 인정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8

성모님께서 당신 삶의 거의 모든 날들을 당시의 보통 여인들과 똑같이 사셨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됩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여인들처럼요. 성모님께서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노동,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돌보는 일, 친구와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하찮게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일상의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삶을 한 마디로 설명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너무도 완벽해서 성모님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의껏 수행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아주 작은 행동조차도 결코 상투적이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범이자 길이십니다. 우리는 성모님 같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보호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지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즉 주님께 충실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우정과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앞에서 바치는 기도,
1970년 5월 24일

12월 8일: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5

만약 우리가 성모님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만 생각하거나 우리만의 문제에 골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 가운데 맏이" 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8,29)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편 교회와 모든 영혼의 구원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5

그러나 이러한 영성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대화의 시작은 분명히 개인적 수준의 것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성모님의 손을 잡는다면, 성모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우리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확실히 깨닫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며, 그분의 딸이자 배우자이자 어머니이신 분이 성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9

대답해지십시오!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도움에 의지하십시오. 성모님은 결코 우리의 어머니 되심을 그만두지 않으실 것이므로 당신 자녀들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임무와 마주하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의 삶을 묵상하는 이들에게 항상 크나큰 호의를 베풀어주십니다.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성자의 모범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에 데려가 주십니다. 이러한 만남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과 저처럼 더 젊은 형제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맏아들과 화해를 이루도록 전구(轉求)해 주십니다.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온전히 당신께 내어드리려는 수많은 회개와 결심들 이전에 성모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 변화를 열망하며, 새로운 삶에 나서도록 북돋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당부하신 "무엇이든지 그(예수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라는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헌신과 그리스도교의 성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모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개인적 삶을 밝혀주십니다.



기도

성모님은 예수님을 양육하셨고 그분의 생애 내내 함께하시다가 지금은 천국에서 그분 곁에 계십니다. 바로 그 성모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가로질러 가실 때,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저희의 희망, 하느님의 종, 상지(上智)의 옥좌(玉座) 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Sancta Maria, spes nostra, ancilla Domini, sedes Sapientiae, ora pro nobis!)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5, 149